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친국립론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
아름 사람

주간총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사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 1:21)

발행처 : 대한예수교 **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노광현 편집국장 : 조선근

2000년 여름 단기선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2천년도 여름 단기선교가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그 동안 단기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한 단기선교 참가자들은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할 것이며, 이들을 파송하는 총현의 모든 성도들은 지속적으로 이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해야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있다.

- ① 모든 참가자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도록
- ②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 ③ 지속적인 성령의 통치를 받도록

국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일본	우간다	몽골	수단
일정	7월17일~29일 (12박13일)	7월24일~8월4일 (11박12일)	7월25일~8월2일 (8박9일)	8월3일~16일 (13박14일)	8월10일~21일 (11박12일)	8월3일~15일 (13박14일)
정원	6명	18명	14명	16명	18명	20명
단장		김영수 장로	윤인현 장로	형의만 장로	임무천 장로	전홍철 장로
지도	이홍성 목사	전철준 목사	박인기 목사	류병희 목사	이종대 목사	김인식 목사

“알고 계십니까?”
신령한 예배를 위한 5대 캠페인
“몇 가지나 지키셨습니까?”

- ①주일 성수하기 ②15분전에 도착하여 지각 안하기
 - ③열린 마음으로 금요집회 참석하기 ④새벽예배드리기
 - ⑤수요예배드리기.
- 이상은 총현교회가 더욱더 예배에 힘쓰기 위해 제안한 5대 캠페인이다. 성도들 간에 신령한 예배를 위한 5대 캠페인이 계속적으로 확산되어지도록 피차에 격려해 주시기 바란다.

방글라데시 단기 선교 7월17일 ~ 29일

이홍성 목사 외 5명이 7월17일부터 29일까지 12박13일 동안 방글라데시로 단기선교를 떠난다. 이번 사역의 목표는 현지에서의 문화적응과 의사소통을 위한 적응훈련으로 진행된다. 고온 다습한 기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건강하게 돌아올 것과 팀원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된 것을 위해 성도들의 많은 기도가 요청된다.

주간총현 사랑하기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그리고 성도들에게 유익을 나눌 수 있도록

매주일 발행되는 <주간총현>은 많은 성도들에게 읽히지고 있으며, 그 가운데는 제작에 참여하는 분들도 있다. 그러나 <주간총현>이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그리고 성도들에게 유익을 나눌 수 있도록 <주간총현>에 마음을 모아 주실 것을 다음과 같이 당부들 드리고 한다.

우선 <주간총현>을 꼭 읽어주시길 바란다. ①면은 교회의 중요한 행사들과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를 알리고 전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주의교회에 참여주시 바란다. ②,③면은 담임목사의 다음 주일 설교가 영문과 한글로 기재된다. 영리로 된 설교를 읽으면 더 유익할 것이며, 한 주일 전에 기재되는 설교를 미리 묵상함으로써 주일에배신자에 더욱 깊은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된다. ④면은 총현교회의 선교와 전도에 대한 소식과 사역의 간증들이 기재된다. ⑤면은 총현의 젊은이들이 참여하는 면으로서 고등, 대학, 청1, 청2가 돌아다니면서 기사를 작성하는 푸르른 아가리로 꾸며진다. ⑥면은 교구의 소식과 장년 성도들을 중심으로 기사를 실리게 된다. ⑦면은 미래의 천국일꾼인 중동부기 하의 부서와 별도의 부서들이 참여하는 공간으로 현재 7면을 보강중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⑧면은 교회소식과 새가족들을 소개하는 면으로 자리잡고 있다.

다음으로 <주간총현>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간증을 글로 옮겨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 글을 쓰시다가 어려우시면 테이프에 녹음해서 보내도 가능하며, 편집실에서 글을 다듬어 줄 것을 부탁할 수도 있다. 글의 내용은 ①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구원의 감격 ②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간증 ③성령강림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 ④또는 복음을 전한 이야기나 ⑤ 믿음의 삶 속에서 느끼는 감격 등을 적어주시면 된다.

교회학교 수련회가 여름방학과 함께 금주에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이번주에 실시하는 부서는 모두 11개 부서로 총현교회와 기도원에서 실시되므로 절서있고 정결하게 사용하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총현의 모든 성도들은 여름 수련회를 통해 각 부서의 영적 충만함이 넘치도록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겠다.

금주에 집중되는 여름수련회 수련회를 통해 각 부서의 영적 충만함 넘치도록

부서	기간	장소	주제	강사
영어부	07/17(월)~07/18(화)	선103호	돈돈히 서가는 교회(영931)	한영준 전도사, 배옥인 전도사
유아부	07/17(월)~07/18(화)	교212호	예수님의 어린이(마18:14)	김정자 전도사
유저부	07/17(월)~07/18(화)	교202.5호	예수님 사랑해(요15:12)	정연희 전도사
유년부	07/17(월)~07/18(화)	교314호	하나님의 전진갑주를 입자(골6:11)	김영기 전도사
초동부	07/17(월)~07/18(화)	제2교육관	돈돈히 서가는 교회(영931)	차병준 목사
중동1부	07/20(목)~07/22(토)	총현기도원	그리스도인의 영적 군사(딤후6:12)	조철수 목사, 정갑신 목사, 박철홍 전도사
중동2부	07/16(주)~07/18(화)	총현교회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내적 부흥(갈5:1)	김인식 목사, 최희재 전도사
진년1부	07/17(월)~07/18(화)	합동신학원	너 하나님의 사람아(딤후6:12)	박광호 목사, 정승원 목사
신동1부	07/16(주)~07/17(월)	가령수련원	세 계명의 사랑으로 넘치는 기쁨(요13:34)	조철수 목사, 김동희 목사
사랑부	07/16(주)~07/18(화)	총현기도원	말씀위에 굳게 서는 믿음(딤후3:16-17)	노경목 목사
에버디부	07/16(주)~07/19(목)	총현기도원	돈돈히 서가는 교회(영931)	박인기 목사, 유성열 전도사

금요 저녁에 흐르는 은혜와 진리의 강물(7월 21일) '십자가의 의미', '왜 날 사랑하나'

지난 주 금요집회를 통해 십자가의 구심점(the Centrality of the Cross)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십자가는 죄를 속하기 위해 희생 제물을 드렸던 구약의 성취이며, 성경 전체의 중심 메시지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래서 십자가는 생명과 피, 죄와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하나님의 의의라는 것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이번 주에는 십자가의 의미(The Meaning of the Cross)를 접하게 된다. 십자가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역사상 가장 중추적인 사건으로,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 배우게 된다(고전13:12).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반대했던 베드로,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새롭게 이해한 십자가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 이번 주에 배우게 될 십자가의 의미를 위해서 베드로전서1:11-12, 베드로전서2:21-25, 베드로전서4:13을 읽고 묵상해 오시길 바란다. 또한 예수께서 본을 보이신 것이 기록된 마가복음10:45와 마태복음26:28도 묵상하시길 바란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집회에는 대학·청년으로 구성된 벨런찬양팀의 은혜로운 찬양이 들려지게 된다. 특별히 벨런찬양대가 고 문성용 형제를 향한 사랑을 기약하며, 기도로 준비한 찬양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향한 사랑과 천국의 소망을 더욱더 뜨겁게 하리라고 여겨진다.

- ①벨런혼성찬양대 -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사' '주의 귀한 사랑'
- ②벨런여성찬양대 - '주님의 축복' '세상의 소망, 천국의 기쁨 예수'
- ③벨런 찬양대 - '왜 날 사랑하나' '저 하늘이 주의 영광 선포한다'

Written Down on Earth

(Jeremiah 17:13)

“O LORD, the hope of Israel, all who forsake you will be put to shame. Those who turn away from you will be written in the dust because they have forsaken the LORD, the spring of living water.”

In today's Bible passage, the Lord God tells us, “Cursed is the man who trusts in mankind and makes flesh his strength, and whose heart turns away from the Lord” (17:5). The background of this passage was Judah's periodic attempts to seek the help of Egypt against Babylon. During trying times, many people place their faith in someone or something other than God. This is, of course, a big mistake because such efforts produce bad results. Why? God tells us, “The heart is more deceitful than all else and is desperately sick; who can understand it? (17:9). The natural condition of humans is sinful. No matter how good one may think his intentions, without the Lord God, they are selfish, rotten, and wicked. Those who are self-sufficient may think that their hard work, sacrifices, and good deeds are beneficial, but God's Word tells us something quite different, “those who turn away on earth will be written down” (17:13).

Do you want to be written down on earth or in the book of life? Let's think about all the things that happen to those people who depart from the Lord, and why. Generally speaking, everyone likes to think in terms of their own goal. Where your heart is, is where your goal is. When you think about your personal goal, you think of ways in which to attain it, to grab it for some benefit. Everything you think about on this earth, this reality, makes you not want to lose the opportunity to get your goal. Do you want to catch earthly things? If so, that's way you depart from God.

God always desires to be near humans, but humans always try to get away from God. When it comes to selfishness, people are eager. Their own goals force them to move away from God. Of course, this leads to human decay. As a Christian, whenever you want to go your way, you against the flow of the Holy Spirit.

Your ways are not God's ways, just as your thoughts are not God's thoughts (see Isa. 55:8). When you void your faith in God, amazing things happen. You begin to see your accomplishments as a good thing. Your fame and fortune lead you to think that your works are worthwhile. To the world and yourself, it appears as

direction for their own lives, thinking that the results appear humble and wise, when in fact the results are only a matter of tremendous pride.

Human talent is limited. No matter how spectacular your achievements may appear, without Christ, they are nothing. Time and nature eventually ruin all earthly efforts. What may

*Do you want to be written down
on earth or in the book of life? Let's think
about all the things that happen
to those people who depart from the Lord,
and why. Generally speaking,
everyone likes to think in terms of their own goal.
Where your heart is, is where your goal is.*

*When you think about your
personal goal, you think of ways in which to
attain it, to grab it for some benefit.
Everything you think about on this earth, this reality,
makes you not want to lose
the opportunity to get your goal. Do you want to
catch earthly things? If so, that's
way you depart from God.*

if you've made it.

Those who turn away from God and become successful in their endeavors, start looking for their own glory. Human history is filled with famous people who found it paramount to leave their mark on this world. People have actually labored to bequeath their name as a treasure, etched somewhere upon this earth. Whatever effort or result they are able to leave behind, they want to save it eternally on the earth. They've thought that their power was valuable and their talent great. Their hope is that whatever they've done can be kept. Most people respect and follow this

appear as a sure result, surely isn't for those who turn away from God. Selfish motives always lead to bad results. People with earthly goals have their name written down on earth. People with heavenly goals have their name written down in heaven. Earthly goals fail because they are short lived, material, and weak. Heavenly goals are eternal, spiritual, and strong. But still, so many people want to put down their treasures on earth because they don't understand that even though a deep human heart searches truth, it doesn't make a good result. The Bible tells us how weak humans are, and history shows us our downfalls and

failures. There is no righteous man. The only assured results that can come to you, come by way of faith in Jesus Christ.

Beautiful, brilliant, and lasting results happen when you come to the Lord. Although your history may be anything but brilliant, and your earthly life has been filled with failures, in Jesus your name is forever and ever written down in the book of life. Humans can't erase what has been written in the heart of God. Once your name is written in heaven, it can never be forgotten. God gives new life to believers. Jesus sacrificed His life and purchased with His blood the names of all who believe in Him. That name returns to the Lord. It is a name always remembered because of the righteous love of God. Amen!

In human history, the most wonderful thing happened because of the cross. God wants to be close to you. He calls out, “Come to Me, all who are weary and heavy-laden, and I will give you rest” (Mt. 11:28). If God writes your name down, who can erase it? “O Lord, the hope of Israel, All who forsake You will be put to shame, Those who turn away on earth will be written down, Because they have forsaken the fountain of living water, even the Lord” (v. 13). When you come back to God, He says, “But you are a chosen race, a royal priesthood, a holy nation, a people for God's own possession, so that you may proclaim the excellencies of Him who has called you out of darkness into His marvelous light” (1 Pet. 2:9). Why would anyone want to go the stupid way, the selfish way, to have their name written on this earth? Jesus sacrificed His life for the glory of God. Let's sacrifice our life and come to Jesus, where our name can be written down forever in heaven! Living for Jesus is the only way that concludes successfully. Come back to Him, and good results will happen, “Blessed is the man who trusts in the Lord and whose trust is the Lord” (17:7). **A**



김성란 목사

흠에 기록이 되오리니

(렘17:13)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흠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를 떠난 인생

오늘의 성경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와가 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렘17:5). 이 메시지는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대항하여 이집트의 도움을 요청하던 때를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나라에 도움을 요청하는 동안에, 수많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인간이나 세상 것을 신의 대상으로 삼았습다. 물론 이것은 커다란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도는 나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물보다 거etz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렘17:9). 인간의 타고난 본성은 죄로 가득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없이, 자신의 의지로 얼마나 선한 것을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은 이기적이고, 부패하며, 사악합니다. 때때로 자기만족을 추구하는 자들은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어려운 일, 희생, 그리고 선한 행위가 유익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흠에 기록이 되오리니”(렘17:13).

자신의 목적에 집착하는 인생

여러분은 흠에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간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 생각해보십시오. 그 이유까지도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모든 사람은 자신들이 세운 목표의 관점에서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목표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의 마음은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자신의 목표에 대해 생각할 때, 여러분은 곧바로 그 목표를 달성하기나 특정한 이득을 손에 넣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세상이나, 현실에 속한 모든 것들은 여

러분을 목표 달성을 위한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붙잡고 싶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는 인생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들과 친밀해지고 싶어하십니다. 그러나 인류의 시도는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갈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위한 것일 때에는, 사람들은 아주 열정적입니다. 그들 자신의 목표들을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도록 몰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인간을 쇠퇴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도 언제든지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가 할 때, 성령의 일하심을 거스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며, 여러분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사55:8).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린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성취한 것이 선한 것이라고 여겨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룩한 명성과 부는 아주 보람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자기 자신에게 그것이 마치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것처럼 보이게 할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세상에 남기려는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자신들의 노력으로 성공에 도달한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영광을 추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유명한 인물들로 채워져 있는데, 그들은 이 세상에 자신들의 업적을 남기려고 자기 분야의 최고의 것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사람은 자신의 이름이 이 세상에 어느 곳에나 떠날 때까지 집이길에 남게 하려고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성과나 결과가 무엇인지 간에 후세에 남길 만한 것들을 이 세상에 영원히 남기고 싶어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있고 위대하게 생각합니다. 이들에게 바람이 있다면 무엇인가 자신들이 이루어 놓은 것들이 존

속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살아가고 사고하는데 있어서 그 결과가 겸손과 현명함으로 드러나게 하는 방식을 존경하고 따르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단지 엄청난 자만이나 교만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신의 종말을 모르는 인생

인간의 재능은 한정적입니다. 팔복할 만한 업적이 드러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들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결국 시간과 자연은 세상의 모든 노력들을 몰락시키고 만다. 확실한 결과를 나타낸 그 어떤 업적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이들을 위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기적인 동기들은 항상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세상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자들은 그들의 이름을 흠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는 목표를 가진 사람은 그의 이름을 하늘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목표는 실패하는데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사는 삶은 짧고, 물질적이며, 약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대한 목표는 영원하며 영적이며 강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보화를 이 세상에 쌓아두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인간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진리를 찾을지라도, 그런 세상적인 추구는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해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한없이 나약하며, 인류 역사는 타락과 실패의 연속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위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당신이 단정지를 수 있는 어떤 확실한 결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책은 오직 예수의 피로만 기록할 수 있다

여러분이 주님께 올 때, 아름답고 찬란하고 끝까지 영원한 것이 전개될 것입니다. 비록 당신의 경력이 무엇인가 찬란하고, 당신의 세상적인 삶은 허망함으로 채워져 있어도, 여러분의 이름

이 예수 안에 있다면 생명의 책에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기록된 것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한 번 당신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면, 그것은 결코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는 그의 생명을 희생하였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이름을 그의 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이름들이 되돌아왔습니다. 그것은 공의로우신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언제나 기억되는 이름입니다. 아멘!

십자가에 새겨진 이름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은 십자가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가까이 다가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11:28).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기록하셨다면 누가 그것을 지울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흠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렘17:13). 당신이 하나님께 되돌아 올 때,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벧전2:9). 왜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고, 이기적이며, 이 세상에 자기의 이름을 기록하기 위한 길을 가는 것일까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께 바리고 예수께 나아갑시다. 우리들의 이름이 하늘에 영원히 기록될 수 있습니다! 하늘을 위한 삶은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께 되돌아오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렘17:7). ■

주님이 준비하신 영혼들을 만나러 방글라데시로...

중보를 부탁하며

이 중 원 (대학부)



하나, 26년 동안 많은 웃을 곁에서 입어왔다. 메이커가 있는 아름답고 있어 보이는(?) 유명한 웃단을 입어왔다. 많은 친구들과 주위의 사람들은 이 웃만을 보고 나의 위치를 가늠했고 그러한 기대에 부응해 나만의 노하우로 그들의 기대감을 채우며 나의 만족감을 채워왔다. 26년 동안.....

둘, 주님의 은혜로 인한 철저한 회개의 모습에 내 안에 있었는가 하는 질문에 오랫동안 답하지 못했다. 은혜를 사모한다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더더욱 나만의 웃은 나의 모습을 더럽혀주고 더러워주었다. 성령을 사모한다 하면서, 성령 충만을 기원한다 하면서 나를 버리지 못하는 모습을 이번 수련회 기간동안 할수없지 볼 수 있었다. 과연 이런 내가 방글라데시를 갈 수 있을까 하는 회의 아닌 회개에 들어 하늘의 별만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기도 했다.

다시 하나, 한 걸 두 걸 걷어온 웃들의 무게가 이제는 제법이 아닌 거라는 막연한 생각이 들며 방글라데시의 날씨가 생각났다. 하나라도 더 일하면 더워서 어쩔 수 없는 그곳, 방글라데시. 내 의지로 웃을 버리는다는

보다는 너무나 더운 날씨가 나로 하여금 절대로 웃을 버리게 하는 방글라데시의 날씨, 머지에서 회망을 발견한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림을 발견한다.

다시 둘,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면서 아직 자아(自我)가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음을 느낀다. 주님의 은혜로, 철저한 나의 겉집이 입혀진 죄악의 굴속들이 한꺼번에 꺼져 버릴 것 같아 버거지기를 기도한다. 나의 의지가 아닌 주님의 은혜의 선물로 나의 죄를 다스릴 때 다스려 줄 회개, 작렬하는 방글라데시의 태양보다 더 강한 주님의 은혜의 빛 안에서 내 자리가 주님께 드러질지 바란다.

셋, 가방 하나 달랑 메고 아무 연고없는 방글라데시의 시골들을 다니며 주님이 준비하신 영혼들을 만나리간다. 절망, 새로운 환경, 언어의 부담, 이러한 것들은 문제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에 정할 사람으로 다가오고 그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는 모습이 내 안에서 생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매번 방글라데시를 다니며 때마다 나를 만져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나의 이 약한 부분, 갑옷이 되어버린 나의 마음까지도 만지시고 회개하길 줄 믿으며 두렵게 나아간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임에 믿기에, 부족하지만 모든 주변환경과 상황을 내 머릿속에서 정리해 내게 그려 나아간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 성경만이 먼저 혼돈과 공허인 상황 위를 운행하신 것처럼 나의 공허진 마음과 방글라데시의 만만 곳곳에서 역사하실 줄 믿는다.

넷, 이홍성 목사님을 비롯한 5명의 팀원들의 모습을 기도중에 기억하여 주시기를.....

내 마음이 하나님께

나는 1999

년 7월달에 한국으로 왔습니다.



9월달에 용인 도현에 있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오른쪽 둘째 손가락이 기계로 잘려나갔습니다. 그때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때 서울 충현교회의 전도사님과 집사님들을 만났습니다. 이분들은 공장에서 저를 찾아와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교회에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일요일마다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에서 공부하고 형제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스리랑카 형제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나에게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1999년 9월달에 탈장 수술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수술이 잘 되었습니다. 사망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모든 스리랑카 형제 자매 화이팅!

(스리랑카팀 신부)

8교구 농어촌 전도를 마치고 하나님의 작품

박 승 길 (집사, 8교구)



2000년도 8교구 농어촌 전도이 다가오면서 나는 무척이나 열려가 되었다.

지금까지의 농어촌 전도와는 달리 전도부흥성회로

장되면서 강사 선정에 문제점

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던 것은 연애인 강사로 정영숙 집사와 이경애 집사로 강사로 없이 무료로 단양 양문교회에서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감사하였다. 또한 보이지 않게 혹은 보이게 수고해 주신 8교구 식구들에게 감사사를 드린다. 특별히 탈안트 정영숙 집사의 간증시간에 우리 모두는 은혜 받은 것 같았다. 동시에 도전을 받게 되었다. 1시간 30분 동안 간증 집회를 하는 동안 성경말씀을 암송하여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다. 지난날 양문교회를 향하여 22명이 버스로 출발하였다. 이번에는 보통 승용차로 출발하였는데 이번에는 무더운 날씨와 장마에 대비해서 버스로 출발한 것이어서 더욱 좋았다. 참으로 3시간동안의 교제 시간은 귀중한 하나님의 작품이었다. 하나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다. 찬양으로 모두가 성령 충만하였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부른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을 체험하였다. 오전11시30분에 단양 양문교회에 도착하여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후에 양문교회 사모님들이 정성껏 준비하신 음식을 맛있게 먹고난 후 정을 풀고 부지런히 준비해간 찬양을 치는 순간 경이로운 하나님의 작품을 보았다. 양문교회 심자가를 중심으로 커다란 찬양의 무지개가 교회 전체를 덮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도 정오의 강렬한 햇빛이 내려 쏘이는 밝은 대낮에 오랫동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양문교회 위에 그리고 그곳에 참여한 8교구 식구 위에 함께하신다는 증거로 믿고 감사를 드렸다. 전도 부흥집회를 통해서 우리 8교구에도 많은 새로운 일꾼들이 있음을 감사했다. 72세 되는 어느 성도는 생령 구원하는 데 먼저 도보를 보여 주었고, 간증도 하였다. 요즘 성경 전권쓰기를 시작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찬양시편은 전도하기 위해 그곳에 계신 분들과 침식을 함께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한분 한분 붙잡고 기도하시며 많은 이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였다. 그분들을 위해 먼저 믿는 우리가 그 상처를 싸매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살아 있는 나무에 상처가 있다고 가절할 때 그곳을 싸매 주고 치료해 주어야 그 나무는 수 있겠다 하

시면서 전정으로 그들을 사랑하였다. 그 사랑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린다.



제기 이·미용 교육수로생으로 6교구와 함께 한 농어촌전도

이 수 자 (권사, 1교구)



나 이가 들으면서 남아는 날을 계수하면서 살아야 할 인생의 길에 서있다. 젊은 집사들이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 아름답게 느껴진다. 예수님의 지상명령과 교회의 5대목표 중 목회자 면목목회는 1인 1전도의 중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나의 생각에 70인 전도와 LMTC 교육의 필요와 부분들을 아름다운 존엄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이·미용 수련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제1기 교육과정을 22명이 수료한 후 4주도 편성이 되어 매주 화요일 목회자에서의 봉사와 우리들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제시하면서 이·미용 봉사로서 그들의 필요와 부분들을 아름다운 존엄에 존엄해 드린다. 결과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이번 7월4일에 6교구에서 연회에 위치한 미산교회에 전도대와 이·미용전도대 10여명이 참가하여 선배들의 능숙한 솜씨와 예수님을 증거하는 가운데 60여명에게 사랑의 손길을 전해 드리는 동안 선출대기인 나 는 혹시 실수나 하지 않을까? 마음은 기도가 계속되고 손끝은 전장으로 가득차 있는 동안 점점 완력이 드러나는 머리에 나의 마음을 안정시켰다. "수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저녁에는 부흥회 시간을 가졌다. 담구정동 스타일의 머리스타일을 요구하셨던 여전도회님과 퍼머리트 머리를 하고 놀라줄 준비를 하신다는 아주머니께서 가족과 더불어 참석하셨고, 저녁 집회에 오고 싶어도 집이 멀고 저녁식사때문에 못왔다고 미안한 마음을 다 큰이들을 통해 대변하면서 예수 믿기로 하셨다는 소식도 들을 수 있었다. 하루의 뜻과 사랑의 봉사가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심기워진 것이다.

어름 낙도시역



박 승 산 (청년1부, 기동기)

99년 여름 나는 청년1부의 사랑하는 지체들과 낙도시역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사역지에서 해야 할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2주인 집도를 매일 교회에서 되었습니다. 짜증스럽고 기쁘고 준비하는 지체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지만 아직은 세상에 살고 있기에 어쩔 수 없는 육체의 연약함과 부족한 모습이 시로에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구나! 생각이 들정도도 얼마아름답던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신실한 지체들과 거룩한 나의 사역을 하게 하시니 낙도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우리들은 목사님과 청년부 지체들의 중보기도를 받고 6시간이라는 장시간 버스를 타야하는 수고를 감수하고 사역지로 이동하였습니다.

여장을 교회에 풀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들이 온다는 소식에 벌써부터 교회 안에 성서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성경학교를 열심히 준비한 자매들이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을 또 소개전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아 있다고 믿지만 바다가 진

들의 삶을 이어주는 것이기에 용왕님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아이들, 하나님을 믿어야 하지만 지금은 너무 바쁘니까 다음에 한가할 때 교회에 가겠다는 할머니, 우리 모두는 앓을 볼 수 없고 언제 죽을지 몰랐다는 것과 내안에 살아 계시니 그 악에서 어둠에서 허무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근심하는 나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변명할 말을 미리 준비하지 말라 너희에게 할 말을 주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들을 물상히 여기셔서 우리들을 통하여 저들을 구원하소서! 다음 날은 비가 많이 와서 우리들은 모여서 '주님! 비가 와요.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시오' 간절히 기도하였는데 비는 계속해서 내렸습니다. 그때 현지 교회 집사님이 "비가 안오면 마을 주민들이 일하러 나가서 진도할 수 없어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는 주님께 너무나 송구하고 한편으로 감사하였습니다. 기도를 듣지 않았으니 것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살아 계셨고 신실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나는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날씨를 허락하시어 복음을 듣지 못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부족한 나는 통하여 열심히 준비한 지체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였고 많은 어린이들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2000년 여름에도 나는 주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복음을 들고 가려합니다. 거기에는 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전경을 승리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 앞에 두고 행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충현의 젊은이들이여, 이 거룩한 사역에 참여하십시오.

펜티엄급 컴퓨터 구함

용도: 농어촌 전도시 현지 교회에 기증(삼흥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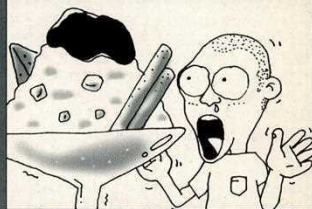
대수: 최소 2대

연락처: 청년1부 윤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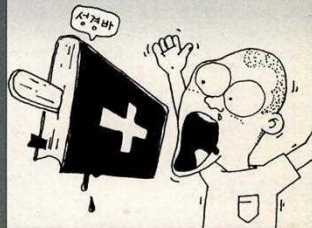
(016-272-5192, 02-554-5192)

만평

1. 더운 이 여름 더덕더 빛나는 누구의 시원스러운 머리와 누구의 땀속을 얼얼하게 하는 팔뚝이수 ...



2. 우리 영혼에도 이처럼 시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면 ...



글 : 그림 / 장 민(min74@jaangminn.com)

Q.T 나눔

사단도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창세기 4장을 묵상하며...)

창세기 4장에는 일류최초의 살인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있기 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시대로 말하자면 예배할 수 있었겠습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가인은 세월이 지난 후에(3절) 곡식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고, 가인은 그 분을 참지 못하여 아벨을 죽인 살인자가 되었고, 아벨은 죽음을 당한 순진자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제사(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특히 이 사건은 예배를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최초의 살인사건이 제사(예배)와 연결되었을까요?

그만큼 예배가 우리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제사(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셨던 것들을 볼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대면서는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책임이 따릅니다. 예배에 은혜를 받기전 내가 얼마나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려 했는가를 먼저 하나님께 조종어 묵상함이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우리는 예배에 관해 너무 많은 편견을 합니다. 물론 몇 가지 예외들은 알 수 있었지만 그것이 불행으로 이어져 가인과 같은 죄로 이어져 가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정경함이 항상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예배의 실패를 통해 우리를 돌아보도록 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며 우리의 삶과 전 영역을 장악하려는 사단의 전략을 알아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림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함을 다시 한번 경각하며 기도합니다.

윤여상 (청년1부, 73통)



내가 만난 예수님

친구 용진이의 가솔

권요셉 (청년1부, 76통)

고교시절. 그러니까 벌써 8년이나 흐른 일이다. 그러나 그 때의 감동은 여전히 그 때로 내 맘속에 내 생활 속에 녹아 있다.

목사님 아이들이었다 나는 알 수 없는 소외감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다. 그 소외감에서 해방된 것은 '용진'이라는 목사님 아들을 작중으로 두면서였다. 친구들은 우리가 지나가면 땀방울을 쏟고 강박관념 친구들도 우리 앞에선 순한 양처럼 행동했다.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는 생각을 스스로 갖고 경건한 척했다. 그러나 다를 것이 전혀 없었다. 그들과 어울려 놀고 싶은 생각이 태산 같았다. 오히려 그들을 부러워하며 혼자 있을 때 물대 놀이마교 하였다. 그러나 용진이는 달랐다. 만나면 기도하길 권유하고 말씀을 읊으며 함께 노래를 흥했다. 어느날 인가는 갑자기 내게 성경님을 만났느냐고 물었다. 난 대답할 수가 없었다. "네?" "오늘 만나러 간 거야?"

다음날 용진이는 학교에 오지 않았다. 모두들 목사님 아들의 가솔이라고 입에서 입으로 협문을 시작했다. 나도 무모한 짓이라고 생각했다. 성경님을 만나겠다고 가솔이라니. 누가 진실을 알아준다. 그러나 부러웠다. 부러운 만큼 조조했다. 용진이의 대담한 행동에 하나님은 감동하셨는지 모른다. 나도 뭔가 달라져야 한다. 학교가 끝나면 교회로 바로 향했다. 가솔하고 학교까지 만났을 용진이 내겐 없었다. 그대신 교회서 받은 하나님께 매달렸다. 나도 성경님을 만나고 싶다고... 졸라들고 졸라들고 보고 한탄도 해 보았다. 기도에 지쳐면 성경을 읽다 잠이 들고 다음날 바로 학교로 가고... 오히려 머릿속과 책도 머릿속 똑같았다. 맑은 점심시간에 친구들 도사리 빼앗아 먹는 게 전 부었다. 아무 것도 변하는 것이 없음에도 조조하니까 날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었다. 부모님들도 처음엔 걱정하며 말리셨지만 내가 고집을 피우자 나중엔 같이 기도해 주셨다. 그 기간 동안 사도행전을 대어섯 번 읽은 것 같다. 그만큼 사도행전이 감동적이었다.

그렇게 며칠이 흐르고 용진이가 돌아왔다. 아니 집착했다. 화 내는 아픈들 속에서 용진이는 웃고 있었다. 얼굴이 환해 보였다.

"성령님 만났니?" "괜히 만났어. 여기 있는 걸 못 찾았 (성령을 보여준다)" "나도?"

"사도행전" "이 나도 사도행전인데..."

그 후 우리 소말리아 한 부족의 사진을 목에 걸고 다녔다. 21세기의 바울이 되자고.

나온자 전국의 열악한

전도이야기

김석진 (집사, 12교구)



수개월 전까지는 길 한 대행 아파트 경비실에 계시는 한 분이 눈에 띄었다. 그분은 할 일이 없는지 창밖을 우두커니 내다보고 계셨다. 드디어 가린 '주간총천'을 드리면서 "교회 다니지 않으시죠?", 하고 물었다. "집사님과 우리 딸은 열심히 다닌다"고 하고 대답하면서 신문은 선톨 받으신다. 그러면서 자신은 주일에 쉬지 않기 때문에 나갈 수 없다고 한다. 다시 물으니 격주로 쉬신다고 한다. "이제부터는 비번인 날에는 교회에 나가세요" 그리고 이 신문을 매주 갖다드렸다고 하자 좋아하셨다.

그뒤 그분이 계시거나 안계시거나 늘 그 자리에 말없이 '주간총천'을 갖다 드렸다. 어느날 "이 신문이 참 재미있어요." "그러세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 나가시죠?" "그러잖아도 그럴 참이라요." 하시는 게 아닌가. 참으로 기쁜 맘으로 기도하면서 신문을 늘 갖다 드렸다. 정말이지 말은 하지 않았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나 이제 교회 간다고요! 자랑하듯이 말씀하셨다. "어머나, 잘하셨어요. 그래 이제 교회 나가세요?" "집권처 우리 가족이 나가는 교회지." "왜이 어디신데요?" "마로 열장동이라요." "그럼 이제 이 신문 그만 가져와도 되겠네요." 그런데 계속 가져오면 좋겠는 것이다. 또 몇 달을 말없이 그 자리에 신문을 갖다 두었다. 며칠 전이었다. 그분은 자청해서 말을 건네는 것이었다. "아, 내가 말해요. 우리 직원들의 건강진단을 실시

했는데, 3명만이 정상이었다요. 둘은 젊은 직원이고 노인중 나만 병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요."

"그리고 보니 헬팩이 참 좋아지셨네요." 실상 처음 보였을 때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 특적인 코에 붉은 반점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모두 없어지고 얼굴이 환해지신 것이다.

"교회에 나가고 나면서부터 술도 끊고 했더니 몸이 좋아지는 것 같소."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 아들이지요"

"그리고 또요?" "하나님이시지요"

"그럼 예수님 믿고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천국 가지요"

"참 대단하시네요. 하나님께 복을 주신 것이 틀림없네요."

"이제 다른 분들에게 그것을 전해야지요?"

"그럼 예수님 믿고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천국 가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그

렇지요?

"예" 라고 힘있게 대답하셨다.

왕도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긴급이 요청됩니다

5교구 김달현집사님은, 사교로 머리수술을, 김해두성도님은 다리절단수술을 하셨습니다.

8교구 박옥선집사님은 입과선암으로, 정경근집사님은 시력이 급격히 감퇴되어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13교구 강학재집사님은 당뇨합병증으로 우측 다리 절단수술을 받으셨습니다.

14교구 박옥선집사님은 위암과 폐암인데 혼자 사는 분으로 통원치료중이시며, 손선례성도님은 뇌출혈로 3차 수술을 마치고 회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15교구 이동식집사님은 위암수술후 재발하여 2차수술 예정에 있고, 강성경여사(18개월)는 심장판막 수술후 심한 고열로 고통스러하고 있으며, 김원대집사님은 간암으로 자택에서 요양중이시며, 김인수성도님은 백내장 1차수술후 각막이 터져 2차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17교구 추교집사님은 간암으로 중환자실에 계셨지만 고비를 넘기고 일반병실에서 입원치료중입니다. 단기전교사로 과소되었던 두 딸 추은희(수남), 추진희(서리랑)가 재가 일시 귀국하여 극진히 보살핎고 있습니다.

충원 성도들의 진정한 위로가 요구되는 환자들입니다. 환자들과 그들의 가족을 위해 쉬지 말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십시오.

연도발원의 편지

주님 안에서 믿음의 교제

박성국 (성도, 2교구)



저와 제처는 모태신앙으로 제쳐와는 달리 저는 미국 유학중 힘든 과정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 기간 중에 많은 신앙의 성장을 하셨습니다. 올해 2월말에 결혼을 하였으며 결혼 전에 서로 성경 교회를 선택함에 있어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서로 다닌던 교회가 있었지만 제처의 제언으로 제3 교회를 찾던 중 저의 믿을 현교회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만족스러움에 충현교회를 만나게 되었고 저 개인적으로 교회를 바꿔설거야 함에 있어 그것이 무척 많았습니다. 처음 충현교회에 참석한 후의 느낌은 교회크기나 성도의 수, 조직적인 면에서 고려했기 때문에 이질감을 느꼈지만 계속 출석하며 적응한 교육을 거치면서 차차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교회 형제 자매들로부터 주로 사랑을 받았으나 각종 모임과 예배에 참석을 하지 못하고 주일 예배만 지킴으로 인해 교회생활은 다소 무미건조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주에 남장구예배에 첫출석을 하였는데 제처에게 참 의미있는 것이었습니다. 가정을 이룬 후 첫출석이라 감개무량하고 가정과 사랑스러운 아내를 허락하신 것에 감사드려야 함을 느꼈습니다. 또한 9시 영예예배에 참석하였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단견하고 백성있는 설교라 마음속에 잘 들어왔던 아쉬운 점은 외국인이 대다수라고 생각했는데 단지 문밖에 안계셨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교회모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형제들과 자매들과의 교제를 통해 사랑을 더 많이 줄 수 있고, 저희들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았습니까?"



이종철 (목사, 11교구 지도)

저는 심방을 가면 종종 질문을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았습니까?" 대부 죽음을 맞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지극본의 성도님들은 "글쎄요" 하시거나 "그야 가봐야 알죠"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에 관심을 보이지 하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위에서 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대는 이 땅위에 몇 년을 더 머물렀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벧전1:24)하고 말합니다. 풀과 같이 마르고 꽃처럼 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그 순서를 모르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나 영혼의 문제에는 관심이 거의 없고 죽으면 없어진 버릴 것들과 주님이 채워하실 때 볼타버릴 것들만 붙잡고 혈안이 되어 분주하십니다. 영혼이 결코 인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죽은 사람은 남의 티를 보고 자신의 티는 보이지 못합니다. 시기합니다. 마귀의 충노릇합니다. 죄만 짓습니다. 세상 것만 추구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죄만 짓다가 지옥만 안됩니다. 성경을 거역하고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하며 마귀 노릇만 하다가 지옥만 안됩니다. 이제 죽음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기관 아는 자기에게 조용히 질문을 던져봅시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영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죽음의 문제요, 영혼의 문제입니다. 한번은 죽습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았습니까? 내 영혼에는 생명이 있습니까?

영혼에 생명을 잃은 자는 길이 다니는 송장입니다.

혹시 나는 송장이 아닙니까? 예수를 믿으셨나요? 송장이라 할지라도 살아남나. 빛을 찾습니다. 충현교회로 나오십시오. 깨달아 전 때까지 나오십시오. 복음이 영혼을 살려 줄 것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영혼을 소생케 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대가 죽음을 맞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시작입니다. 죽음이후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히9:27) 말씀했습니다. 죽음과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한결을 선택해야 합니다. 충현교회로 나오셔서 예수 믿고 천국을 얻으십시오. 아니면 그대는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요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멸망치 않습니다.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다. 구원받고 천국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대피하신 바 되셨기 때문입니다. 믿기만 하면 용납해 주십니다. 모든 죄도 용서해 주십니다.

충현교회로 나오셔서 예수 믿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어떤 반응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은 천화를 소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영혼의 문제입니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지옥가면 안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말씀을 영생의 문으로 받으십시오. 영혼이 살아납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천국을 얻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충현교회는 그대를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참된 자유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나”

박영선 (집사, 7교구)



세상에 있어 그런데도 잘살다가 크리스천이 되어 변화된 삶은 무엇일까?

남이 내게 끼치는 영향력에서 조금씩 벗어나 살 수 있는 것이다. 예전같은 극도로 슬프거나 서운하기도 하고 분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이전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된 것이다. 왜냐하면 내 죄악이 훨씬 심각한걸 알았기 때문이다.

남들이 나름대로 이유있는 행동보다 내안의 감추인 죄악들이 분명하게 느껴지기에 남들에게 분개할 여력이 없는 것이다. 상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크신 사랑을 알았기에 진정한 자유를.

동정녀 몸에서 탄생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을 내 생각으로 이론으로 믿게 된 일이 아님을, 하나님의 은총,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한 우리들이지 않은가. 예수! 물과 피를 쏟으신 사람의 실체. 그 예수가 내 삶의 모든 것이 되고자 몸부림치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 외에 내 생각으로 어찌 '하나님의 일'에 간섭할 수 있겠는가.

일주일 에 한 번의 병원진도를 가며 안타까운 상황의 환자들을 만나게 된다. 우리가 추구하는 지식, 도덕, 예의, 순서... 등은 그들에게는 무의미하다. 그저 삶과 죽음, 죄와 용서뿐이다. 죄의 삶은 사망이기에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모든 인류도 같은 처지 일뿐이다. 이 사실을 너무도 분명하게 아시는 주의 종들이 총현교회에 계시기에 예배마다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 어떠한 상황보다도 중요한 건 우리의 구원일임에 주님께... 더구나 사망이기에 필박을 견디시며 복음만이 선포되는 총현교회의 성도들이 진정한 행복하다.

제발, 우리들 시각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격정으로 나 자신을, 총현교회를,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도록 내 입술을, 내 행동을 돌아보도록 하자.

“그리므로 내가 이르기를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나.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느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고전 4:5).

나를 바꾼 한마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박철홍 (전도사, 중동부 부지도)

특별한 기도제목을 가지고 새벽 예배에 지속적으로 참석한 적이 있다. 작정하고 갔던 새벽예배에 갔는데 산더미 같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갔었다. 예배가 끝나고 개인 기도시간이 되면 한쪽에 자리를 잡고 준비해간 기도의 제목들을 열심히 쏟아 부었다. “하나님... 하나님... 주님... 주님...” 기도제목이 많을 땐 한시간이 넘도록 이어지기도 했다. 한가지 기도제목만 빼먹어도 뭔가 허전하고 내가 일일이 읽어가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알지 못하시고, 응답도 안주시 것만 같은 불안감이 어느덧 나에게 자리하고 있었다.

그렇게 기도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나름대로 생각해 아침 공기를 들이 마시며 한껏 기개를 치면, 작정하고 시작한 새벽기도를 오늘날 빼먹지 않겠다는 일종의 성취감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했다.

아마도 새벽기도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던 시기였던 것 같다. 누룩복음 21장 36절을 근거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제하여 새벽 말씀이 선포되었다. 짧은 메시지 가운데 내 귀를 깨운 것은 “절으면서 기도하세요. 틈만 나면 하나님과 대화하세요”라는 것이었다.

나에게 기도는 항상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앉아서 할 때만이 효력이 있는 것이었다. 아침에 눈을 뜰 때와 저녁에 눈을 감을 때, 세기의 식사를 먹을 때 하는 기도는 필수였고, 그 외의 시간은 특별한 경우에만 기도하는 선택사항이었다. 차량으로 이동 중에는 차량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명하니 바라보았으며, 길을 때는 오만가지 생각을 해가며 무의미하게 목적지를 향해 바쁜 걸음을 계속하기 일쑤였다.

절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나에게 신성한 충격이었다. 그것은 기도의 고정된 형식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자, 내가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 항상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후로 나는 하나님과 어느 시간이나 어느 곳에서나 진정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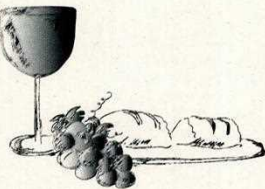
목·강말임

성찬식을 돌아보며

김영훈 (목사, 고동부 지도)

총현교회에

6월9일로 6월 9일로 성찬식 주일을 보냈다. 누룩은 빵 그리고 포도주.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예식을 통하여 목사로서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과연 나는 주님의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는가? 자신을 부인하고 있는가? 떡과 포도주로 드러나는 성찬식을 나를 위하여 예수님의 자신을 주신 사랑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너무도 소중한 시간이었다. 성도님들이 성찬에 참여하여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갖는다. 본전도 1부, 3부, 5부 예배의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말씀과 성찬식의 은혜에 빠져 있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너무도 소중한 시

간임을 생각하며 고동부 학생들이 더 많이 참석 못할 대 대한 아쉬움이 남았다. 그런데 이런 은혜로운 성찬식 뒤에는 철저한 준비가 있다는 것을 토요일 성찬

준비에배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은혜로운 예배 뒤에는 철저한 준비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오늘 성찬식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준비들을 뛰어 넘는 하나님의 준비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것도 이미 태초 전부터 그리고 구약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준비가 있었기에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오늘의 성찬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예 1년에 12번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은 어떻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나



범사에 감사하라

언뜻 스치거는 한순간의 잊혀지지 않는 감동을 붙잡는다.

할렐루야 찬양대주보 '새물' 지을 보게 되었다. 할렐루야 찬양대에서는 매주 일 '칭찬합시다'란 코너를 마련해 놓고 칭찬 릴레이를 이어 가고 있는데, 그 코너를 담당하는 새물지 기자들의 '한마디' 글을 읽게 되었다. 기자가 쓴 인사말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말이어서 진부(진부)하게 생각했는데 나에게는 새롭게 다가왔다.

는 아침 일찍 오셔서 새물지를 집어주시는 집사님에 대해, 원고에 관심을 갖고 보내주시는 대원들에 대해, 자신의 컴퓨터 실력이 새물지에 인하여 늘었음에 대해, 오타를 웃음으로 지적해 주시는 대원들에 대해, '칭찬합시다' 코너에 붙일 사진을 보내고 붙이는 가운데 대원들 한사람 한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에 대해, 예수님을 알게 된 것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끊임없이 감사하다는 인사말이 이어졌다.

이 글을 보면서 내 내안에 감사의 열매를 알게 되었다. 순간순간 살아 역사는 주님이 내 곁에 계실 때도 한 항상 불만 불평 속에 생활을 해왔는데, 새물지 기자들의 글은 나에게 주님의 시작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인내하며, 모든 것을 찬양할 수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고, 지금 난 그 기쁨에 감사하고 있다. 한사람의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이렇게 아름답게 퍼져 나갈 수도 있구나! 생각에, 감사하지 못했던 나를 깨닫게 해주신 주님으로...

(최은아 기자)



교회소식 / 새가족 소개

알림

1. 방송식 카메라 분사(자전전예배) 한글 자막 출력 분사(자전전예배) 구할 후원교회 방송식에서는 주님의 유익과 교회를 위해서 성직의 봉사할 카메라 분사자와 한글자막출력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2. 자막: 총현교회 세례교인, 카메라 분사자는 대략부 이상의 형제, 자매 (초보자 가능)
- 문의: 552-8200(교민224), 562-4872

모임

1. 장로교 모교(가)교회
 - 일시: 17(월) 새벽기도회
 - 장소: 교목관 109호
2. 안수집사의 회교(가)교회
 - 일시: 18(월) 새벽기도회
 - 장소: 교목관 109호
3. 전사(가)교회
 - 일시: 19(월) 수요일 새벽예배
 - 장소: 영아부실
4. 기쁨의교회 생활원교회
 - 일시: 오늘 새벽예배
 - 장소: 신교관 303호

남녀전도회

1. 바울 72회
 - 일시: 17(월) 19:00
 - 장소: 동문길 김경준 강도
2. 바울 52회
 - 일시: 23(일)다문구 15:30
 - 장소: 교목관 222호
3. 바울 72회
 - 일시: 오늘 교목구

- 장소: 교목관 307호
- 4. 바울 91회
 - 일시: 오늘 교목구
 - 장소: 봉산교회2층 교목구
- 5. 바울 12회
 - 일시: 22(일) 14:00
 - 장소: 22(일) 20:00
- 6. 바울 13회
 - 일시: 오늘 교목구
 - 장소: 교목관 403호
- 7. 바울 16회
 - 일시: 오늘 교목구
 - 장소: 제2교목관 4층
- 8. 바울 17회
 - 일시: 25(일)다문구 교목구
 - 장소: 봉산교회 지하1층
- 9. 바울 17회
 - 일시: 22(일) 19:00
 - 장소: 구재관길사(545-4214)
- 10. 바울 4회
 - 일시: 오늘 19:00
 - 장소: 교목관 407호
- 11. 바울 6회
 - 일시: 18(일) 05:50
 - 장소: 강변동
- 12. 바울 7회
 - 일시: 23(일) 19:30
 - 장소: 근대사관
- 13. 바울 10회
 - 일시: 오늘 교목구
 - 장소: 교목구
- 14. 바울 14회
 - 일시: 18(일) 17:00
 - 장소: 교회앞길 김경준(후원)
- 15. 바울 15회
 - 일시: 25(일)다문구 교목구
 - 장소: 영아부실
- 16. 바울 16회
 - 일시: 23(일)다문구 교목구
 - 장소: 교목구
- 17. 바울 17회
 - 일시: 오늘 교목구

- 일시: 오늘 교목구
- 18. 바울 18회
 - 일시: 오늘 교목구
 - 장소: 교목관 212호
- 19. 바울 21회
 - 일시: 오늘 교목구
 - 장소: 교목관 212호
- 20. 바울 22회
 - 일시: 오늘 교목구
 - 장소: 교목관 212호
- 21. 바울 23회
 - 일시: 오늘 교목구
 - 장소: 교목관 212호
- 22. 바울 24회
 - 일시: 오늘 교목구
 - 장소: 교목관 212호
- 23. 바울 25회
 - 일시: 오늘 교목구
 - 장소: 교목관 212호
- 24. 바울 26회
 - 일시: 오늘 교목구
 - 장소: 교목관 212호
- 25. 바울 27회
 - 일시: 오늘 교목구
 - 장소: 교목관 212호
- 26. 바울 28회
 - 일시: 오늘 교목구
 - 장소: 교목관 212호
- 27. 바울 29회
 - 일시: 오늘 교목구
 - 장소: 교목관 212호
- 28. 바울 30회
 - 일시: 오늘 교목구
 - 장소: 교목관 212호
- 29. 바울 31회
 - 일시: 오늘 교목구
 - 장소: 교목관 212호
- 30. 바울 32회
 - 일시: 오늘 교목구
 - 장소: 교목관 212호
- 31. 바울 33회
 - 일시: 오늘 교목구
 - 장소: 교목관 212호

- 일시: 오늘 교목구
- 장소: 영아부실
- 32. 바울 34회
 - 일시: 오늘 교목구
 - 장소: 교목구
- 33. 바울 35회
 - 일시: 오늘 교목구
 - 장소: 교목구
- 34. 바울 36회
 - 일시: 오늘 교목구
 - 장소: 교목구
- 35. 바울 37회
 - 일시: 오늘 교목구
 - 장소: 교목구
- 36. 바울 38회
 - 일시: 오늘 교목구
 - 장소: 교목구
- 37. 바울 39회
 - 일시: 오늘 교목구
 - 장소: 교목구
- 38. 바울 40회
 - 일시: 오늘 교목구
 - 장소: 교목구

서초성경전도회
일시: 22(월) 11:30
장소: 서초경찰서

고등부 하기능어른 전도사역에 동참할 이·미용 봉사자 모집합니다

고등부에서는 24(월)부터 27(월)까지 강연회 전선 구절강연회, 평창 미션교회, 어릴 마차전선교회에서 전도사역을 실시합니다. 이에 이·미용에 봉사자 관심이 있거나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장소: 제2교목관4층 교목실(내선번호: 229)
일: 23(일)다문구까지
연락처: 후원회(011-387-3957), 강연회(011-321-6942)

총현 중보의 창

1. 김성관 위임목사의 영육을 강권해 하시고 성령으로 총판해 하셔서 주께서 하게 쓰시는 말씀의 종으로 온전히 붙들려 주옵소서.
2. 김창진 원로목사와 모든 교역자 및 당회원과 직분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모든 청지기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힘써 세워가게 하소서.
3. 회교가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되어 말씀과 기도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거룩하고 순결한 회교가 되게 하옵소서.
4. 각 부서별로 진행되는 영육 성경학교 및 순회회에 참여하는 총현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하소서.
5. 금년 여름에 실시된 단기선교와 놓여촌전도 사역을 통해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소서.
6. 세계 각 지역에 흩어져 사역하는 선교가들의 헌신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 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온총을 하라 하소서.
7. 5대 목표가 각 부서와 성도들의 헌신과 총선 속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하옵소서.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674	윤현숙	1	무디아		678	김윤영	11	한나	이귀자(4)	682	윤정덕	19	창년2		686	허재은	1	창년2	
675	이윤영	4	창년1		679	신종현	19	창년2		683	이재은	1	창년2		684	박종철	7	예바다부	조진환(14)
676	이윤희	4	창년1		680	정익환	19	창년1		684	박종철	7	예바다부	조진환(14)	685	최희숙	19	예바다부	
677	김옥순	8	한나	김은나(8)	681	윤영숙	19	창년1		685	최희숙	19	예바다부						

※ 총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정정현·김생연·이애경' 성도를 소개합니다



장모님과 아내와 함께 새가족 집회에 참석하고 있는 **김생연 형제**는 대학 시절에 몇몇기간 기독교에서 잠시 활동한 것이 자연스럽게 기독교를 갖게 된 동기입니다. **이애경 자매**는 결혼하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성장과정에서 인성과 감성이 고된 발달이 인격형성에 중요함을 알고 교회다니며 신앙으로 교육시키고 받고 바르게 키우고 싶어서 아이들이 교회학교에 보내게 되었고 남편과 친정 어머니와 함께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침 새가족 집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에 대해 배운 후 분반 공부시간에 교제의 답을 배워 고향에 적어와서 대답하고 있는 형제에게 기독교를 활동할 때 구원의 확신을 있었는지를 물었더니 그때는 확신이 없었기에 이애가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겠냐며 직장 선배의 인도로 교회에 나오고 새가족 집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의 확신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정현**은 할머니와 함께 믿음생활을 하게 되어 기쁘고 즐거우시답니다.

한숙정 (새가족부 통신원)

점 · 기 · 는 · 본 · 들

원로목사 김창진

위임목사 김성관

■ 사무장

- 김의철 전도사
- 이병학 전도사
- 김종우 전도사
- 김종우 전도사
- 김종우 전도사
- 김종우 전도사
- 김종우 전도사
- 김종우 전도사
- 김종우 전도사
- 김종우 전도사
- 김종우 전도사
- 김종우 전도사
- 김종우 전도사
- 김종우 전도사
- 김종우 전도사
- 김종우 전도사
- 김종우 전도사
- 김종우 전도사
- 김종우 전도사
- 김종우 전도사

■ 부목사

- 이종대 전도사
- 이종대 전도사
- 이종대 전도사
- 이종대 전도사
- 이종대 전도사
- 이종대 전도사
- 이종대 전도사
- 이종대 전도사
- 이종대 전도사
- 이종대 전도사
- 이종대 전도사
- 이종대 전도사
- 이종대 전도사
- 이종대 전도사
- 이종대 전도사
- 이종대 전도사
- 이종대 전도사
- 이종대 전도사
- 이종대 전도사
- 이종대 전도사

■ 전도사

구분	시각	장소
I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00	본당
III	오전 11:00	본당
IV	오전 1:00	본당
V	오전 3:00	본당
VI	오전 5:00	본당
English Service	9:00 a.m.	강화교회(강화교회)
주말 예배	오전 10:00	본당
수요 예배	오전 10:00	본당
금요일 예배	오전 7:30	본당
새가족 교회	오전 5:00	본당